

AI·에너지·투자 집결… ‘K-산업’ 글로벌 무대 중심 선다

APEC 주간 맞아 경제인 행사 잇따라
경주서 열리는 CEO 서밋 본격 개막
AI·조선·방산 등 첨단산업 한자리에
삼성·현대차·SK·LG 해외협력 강화
미래 산업 청사진 제시, 비전 공유

이번 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간을 맞아, 한국이 세계 경제의 무대로 다시 주목받는다. 산업통상부는 27일 APEC 정상회의의 주간에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APEC CEO 서밋(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APEC CEO 서밋은 28일~31일 까지 3박 4일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17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간 시작 첫날인 27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릴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관계자가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변화, 금융·투자,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등 20개 세션을 논의한다.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OECD 등 세계 주요 기업과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도 예정돼 있다.

경주에서는 CEO 서밋과 연계한 ‘퓨처테크 포럼’(27~28일, 30일, 경주 예술의 전당, 엑스포 공원 등)도 진행된다. 조선, 방산, AI, 리테일, 가상화폐, 미래

에너지 등 6대 첨단산업을 주제로 SK그룹, HD현대, 한화, 두나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 전략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퓨처테크 포럼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K-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K-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며 “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리더, 테크 기업, 세계 석학들이 심도있는 인사이트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가 참가하는 ‘K-테크 쇼케이스’(28~31일, 엑스포공원)에서는 차세대 폴더블폰, OLED 디스플레이, AI 데이터센터, 수소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는 연계 행사가 이어진다. ▲‘수출 붐업 코리아’(10.21~11.7일, 서울·일산·부산·대구

등 전국)는 전국 28개 산업 전시회와 연계해 17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열고,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10.30, 31일, 서울)은 첨단산업·공급망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28~29일, 서울)는 닥테크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 컨트론타워를 출범시켜 행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다양한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AI전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K-산업의 대응 역량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SK이노, ‘LNG 협력’ 글로벌 비전 제시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개최
AI시대 전력수요·저탄소 전략 논의
美 LNG 역할·국제협력 방안 조망

SK이노베이션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오는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세션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글로벌 기업 CEO와 학계 인사, 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연례 비즈니스 포럼으로, 오는 28~31일까지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에너지 협력 의지를 직접 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6개국 10개 에너지 기업의 리더들은 케이스케 사다모리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시장·안보국장의 사회로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 가격경쟁력, 에너지 공급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 /뉴시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세션1에서는 AI 혁신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석탄을 대체하며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LNG의 역할이 집중 조명된다. LNG가 단순한 브릿지 연료를 넘어 최종 에너지 믹스의 핵심 연료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 및 일본 제라와 호주 바로사 가스전을 공동 개발 중인 산토스의 선 피트 부사장(EVP)이 참석해 고갈 가스전을 활용한 롬바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허브 구축 사례

를 소개하며 호주의 탄소저감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LNG 지속가능성 모델을 공유한다.

‘US LNG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2에서는 미국의 ‘제1차 LNG 물결(1st LNG Wave)’부터 장기계약 파트너로 참여한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미 LNG의 가격경쟁력과 계약 유연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LNG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험을 공유한다. 미국 ‘셰일가스 산업의 개척자’로 알려진 해럴드 햄 콘티넨탈 리소시스 명예회장은 세계 최대 LNG 공급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혁신 기술력, 정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미 LNG 산업의 성공요인과 미래 잠재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LNG는 아태지역 경제 성장과 AI 혁신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가 간 협력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행사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AI·광물·에너지, 성장의 삼각축”

구윤철, 중남미 인사들과 협력 논의
“청정에너지 전환 함께 이끌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남미 지역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는 전 세계적인 성장의 둔화와 급속한 기술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미주개발은행(IDB) 인공지능 협력사무소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AI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다양한 금융협력을 통해 디지털, 핵심광물,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AI를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세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가진 딥테크 기술 경쟁력과 중남미의 높은 디지털 친화력이 함께 한다면 글로벌 AI 대전환을 이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남미는 전 세계 핵심광물의 30%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라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제조기술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상호호혜적 협력이 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는 전체 전기 공급의 60%가 청정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강국이다. 풍부한 청정에너지 발전여건을 보유한 중남미와 우수한 플랜트, 인프라 건설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 앞에 서 있다. 2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이웃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가 됐다”고 했다.

IDB와의 협력이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고도 말했다. 인프라·에너지·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중남미·카리브 지역 발전에 공유돼 양측 모두에 성장의 기회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년간 IDB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원한 사업으로 400만 가구가 넘는 중남미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편리한 교통과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받으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1년 페루, 2016년 콜롬비아, 그리고 2019년 중미 5개국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20년간 한-중남미의 교역 규모는 3배, 투자는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중남미, ‘AI 협력 허브’ 설립 추진

구윤철 부총리-IDB총재 면담

한국-중남미 간 미래기술 협력을 위한 ‘AI 협력 허브’ 설립이 추진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IDB 협력 패키지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한·중남미 양측은 공동 발전을 위해 한국에 ‘AI 협력 허

브’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AI·핵심광물·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향서에 담겼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AI·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AI 협력 허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IDB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축하하고, 중남미 지역 발전을 위한 그간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양측은 한국 인력의 IDB 진출 확

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는 뜻을 모았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IDB에 유능한 한국 인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채용설명회뿐만 아니라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IDB 한국어 웹사이트 등 한국 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구 내에서 한국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이날 개막한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